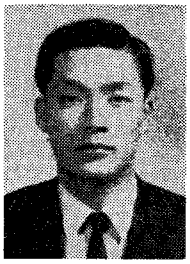
연재 6회

일반 닭병에 대한 제문제점



김 기 수
〈천호부화장 업무부장·수의사〉

오늘날 양계업에 적이되고 있는 마렉병은 우리에게 하나의 공포증을 안겨주고 있는듯 싶다. 난계대전염은 없으나 공기를 통하여 언제 어느시기에나 발생하기쉬운 마렉병은 무서운 질병이기는 하지만 타원인에 의한 비슷한 질병들을 마렉병으로 취급함은 극히 위험한 일이다. 모처에 출장도중 이런얘길 들은 적이 있다. 「요즈음 심하다는 마렉병은 암프롤을 먹였더니 예방이 되더라」 이는 전혀 근거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본다. 마비가주증인 이병은 초생추시기에 거의 100%가 감염되었다가 디비킹이나 예방접종, 호흡기병감염 및 약 4주령에 다발하는 콕시듐증등으로 그 상태가 악화되면 6주령 이후에 주로 발생하게 된다. 콕시듐예방제인 암프롤을 먹여 마렉병이 나타나지 않았음은 그 목적이야 어떻게 됐든 그 원인을 없앰으로써 병발생을 막았음에 이해가 간다. 헌데 우리들은 관리상 실수에서 오는 비전염성 병들을 마렉병이나 추백리 등 무서운 질병으로 소홀히 취급하여 많은 약제와 노력을 소모해 가며 사업을 망치는 예가 많으니 올바른 이해와 철저한 대책으로 대처함이 요구된다. 이들의 예방법은 주로 그 원인을 제거해 줌으로써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많다.

1. 식체증(食滯症)

이는 주로 어린병아리가 첫모이 먹은 후 7일이내에 발생하기 쉬우나 성계에서도 간혹 발생한다. 식도의 일부인 모이주머니(嗉囊)는 조류 특유의 소화기관으로서 섭취한 사료, 물, 모래 등을 잠시 머무르게하여 연하게한 후 적당한 양을 위(胃)로 내려 보내는 작용을 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에 깃, 털, 모이등이 가득차 수시간동안 굳은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식체증이라 한다. 시간이 경과한 후 손으로 만져보면 물컹물컹하고 따뜻하게 느껴진다.

그 원인은 ①육추기의 저온으로 섭취량은 많으나 소화기능이 일정치 못할 때

② 음수량의 부족시

③ 급이(給餌) 관리의 부적당

사료의 급변, 제한급이, 회수제급이, 급이시간을 놓쳤다가 한꺼번에 다량급이시, 부패된 사료 급여시,

④ 섬유질이 많은 녹채, 짚등의 거친 사료를 많이 섭취했을 때

⑤ 비타민B군의 부족 또는 결핍시,

대책은 원인을 고쳐줌이 중요하며 병아리는 온도, 습도, 환기를 좋게 해주고 모이는 일시중단했다가 공복이 된후 다시준다. 또한 급여중지하고 따뜻한 물을 먹인후 두부(頭部)를 아래로 늘어뜨리고 가볍게 문질러 토하게 한다. 성계의 완고한 식체에 대해서는 스포이드로 중조수(50배액) 10~20cc정도를 주입하여 맛사지하여 토하게 한후 2~3회 씻어내고 마지막에 10~20cc의 중조수에 수당 3~5cc의 쓴 약을 넣어 준다.

2. 카니발리즘(惡嚙症 Canivalism)

한우리 안의 닭들의 털이나 발가락, 항문 등을

쪼아 출혈을 하거나 심지어는 창자까지 빠져나오게 하여 죽게 되는 경향도 있으며 달걀을 쪼아먹는 나쁜 버릇도 있다. 특히 다수의 암컷속에 들어간 숫컷에서 꼬리털이 빠진 보기흉한 닭들을 볼 수 있으며 그 버릇에 따라 식우(食羽), 식혈(食血), 엉덩이(尻)쪼기등 여러가지로 부른다.

1) 영양적원인으로는

①식염, 단백질, 섬유질의 부족.

②사료와 물의 양적부족과 질적 불균형.

2) 환경적원인으로는

① 밀사; 평사인 경우는

0—20일령까지는 1,000수당 6평

21—40일령 〃 〃 15평

40—56 〃 〃 〃 23

성계시는 평당 13—17수를 수용함이 적당하다.

② 일령, 색갈이 서로 다른 병아리를 혼사함은 발육불량추를 만들기 쉬우니 유의 할것.

③ 계사가 너무 밝을 때

발가락 혈관부나 항문부위가 조명으로 특이한 부위로 나타나지 않게 전등의 촉수, 높이, 거리등을 고려함이 필요하다.

④ 환우나 돌발적인 상처로 출혈이 생길때도 닭에 악벽을 조장하는 원인이 된다.

그 대책으로는

① 디비킹(Debeaking)

닭을 사육하는 목적, 품종, 일령에 따라 다르나 보통 1~2회로 제한하여 성장지연, 산란저하 질병유발을 가져오는 스트레스를 억제시키고, 사료허실을 막으며 사양밀도를 높이고 온순하게 자라 상품가치를 높임이 필요하다.

② c/p율이 잘 취해진 사료를 먹이며 보리나 호밀을 증량하여 섬유질 함량을 5% 정도로한다

③ 사료에 식염을 0.5%배합하고 부식토나 녹사(綠飼)를 충분히 급여한다.

④ 한번 쪼여 출혈이 있는곳은 마큐롬같은 색갈있는 것을 바르지말고 악취가 있는 목탈 같은것을 발라줌이 좋다. 완고한 식우벽을 교정하는데는 신선한 소(牛)똥을 수당 1日 30g이상 주면 효과가 있다고 한다.

⑤ 산란상자를 어둡게하여 주고 급여회수를 여러차례로 나누어 한다.

3. 탈 홍(脫肛)

소체구의 닭이 쌍알, 기형란등 대란을 낳든가 연속적으로 다산을 하든가 또는 산란직전에 닭을 놀라게 하여 갑자기 출산하는 경우엔 항문이 외부로 뒤집혀서 탈홍이 되는때가 있다. 이때부터 출혈이 심하게되어 벼슬은 암자적색(暗紫赤色)으로 변하게 되는데 다른 닭들이 따라 다니는걸 보아 쉽게 구분할수 있으니 타 질병과 혼동하지 말아야 겠다.

<표 1> 병에 따른 벼슬의 변화

증 상	병 명
빈 혈(퇴색)	내장형백혈병, 뉴캣슬병, 기생충증, 하리증
暗 紫 赤 色	전염성하리, 난에 의한 급성복막염, 성계의 추백리증중독, 곰팡이성폐염, 탈홍, 동상
발 두	계두
위 축	소장성록시듐증(만성), 백혈병, 마렉병
백색물질부착	기생충증

한번 탈홍된 닭은 회복시키기 힘들므로 도태시킴이 현명하며 초산시부터 잘다루어 체력을유지시키고 산란지속을 이겨내도록 육성해줌이 필요하다.

4. 하리증(下痢症)

여름철 고온·다습시에 많이 볼 수 있으며 물같은 설사가 특징이고 벼슬은 퇴색되며 식욕과 원기가 없어진다. 특히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백혈병의 초기증상이니, 추백리니, 전염성하리증이니 하고 경솔하게 판단함은 극히 위험한 일이다. 하리증의 주원인은

① 온도가 너무 높거나,

② 사료의 과식,

③ 부패된 모이를 먹었을때,

④ 회충의 기생등인데 이때는 육추기의 온도를 높이고 1일정도 절식시킨 후 사료에 3~4%의 목탄가루를 섞고 소화하기 쉬운 사료로 급여함이 좋다.

변에 의한 질병을 대체적으로 분류해보면

<표 2> 각기질병에 의한 변의 변화

증 상	병 명
혈변(초생추~중추)	맹장콕시듐증(급만성형)
고기같은 변(대추~성계)	소장콕시듐증(만성형)
황색 하리변	흑두병
물같은 설사	전염성하리증
백색하리·연변	초생추시—추백리증 성계시—수란관염, 수뇨관염, 신장염
녹색 하리변	뉴캣슬병, 전염성하리증(중증), 류코사이토쥰병
녹색 또는 갈색의 연변	백혈병(내장형)
기생충란의 배출	내부기생충

5. 장만(腸滿)〔복수증, 복막염〕

복강에 물이 고여 하복부가 부어 올라오는 것을 복수증이라 하고 복막에 염증을 일으킨 병을 복막염이라 한다. 그 원인은 난추증, 난비증, 난소의 이상, 장관의 파열, 복벌의 궤양으로 일어나며 복부를 손으로 눌러보면 고무공에 물이 든것 처럼 딴딴하다. 이는 내부장기를 압박하여 여러가지 장애를 일으키며 일찍 도태시킴이 효과적이다.

그 대책으로는 횃대를 너무높게 만들지 말것이며 인공수정시 닭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한다.

6. 난추증(卵墜症), 난비증(卵祕症)

햇닭의 초산시나 새로 개량된 다산계에서 수란관의 역운동으로 말미암아 알이 복강내에 떨어지는 병을 말한다.

이때는 파열되기 쉬우며 산란시에 불안, 놀램이 큰 원인이 된다.

7. 사료성 간장비대증

이는 어촌지방에서 많은 병으로 구하기 쉬운 고기부스러기나 고등어 토막 같은 지방이 많은 종류를 과량 급여하면 생기게 된다. 또한 코린이나 메치오닌이 부족하면 남는 지방을 못다 처리하게 되어 생기기도 한다.

이는 외관상으로는 조기판단이 어렵고 해부하여 보면 정상의 간장보다 4—5배까지 비대하여 다른 질병들과 혼동하기 쉽다.

<표 3> 질병에 따른 간장의 변화

병 명	증 상
내장형백혈병	Big Liver Disease 大肝症이라 부를 정도로 5—6배 종대하며 회갈색 과립상(顆粒狀)이다.
흑 두 병	황색 또는 황록색의 괴사반이 環을 이루며 간표면보다 오목하게 꺼져 들어감이 특징이다.
추 백 리	황록색을 띄는 간의종대
탈 티 푸 스	간은 종대되고 청동색을(Bonze liver) 된다.
사 료 성 간장비대증	淡色 종대하며 정상보다 4—5배

그대책으로 ① 신선한 생어(生魚) 부스러기를 쓰되 1일 수당 55g이내로 급여량을 제한한다.

② 생어부스러기의 급여량을 반으로 줄이고 대신 어분을 반으로 대치한다.

③ 녹사료를 많이준다.

④ 밀사를 하지말것.

⑤ 쌀겨류를 많이 준다.

8. 연란증(軟卵症)

알은 난소(Ovary)에서 수란관(유두부·난백분비부·협부), 난각형성부, 자궁부를 거쳐 총배설강(Cloaca)으로 나오게 되는데 난각을 형성하는 주원료인 칼슘(Ca)의 공급이 부족하거나 내외적인 요인으로 장애를 받아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방란되는 것을 연란증이라 한다.

그원인; 1) 영양적 결함

난각형성은 칼슘(Ca)+인(P)+비타민D_3나 칼슘+인+비타민D_2+인광외에도 망간(Mn), 아연(Zn), 비타민C등 여러가지 미네랄 성분이 필요하니 그 배합례를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하여 전문가들과 상의함이 좋다.

② 고온

특히 여름철 고온사는 갑상선의 활력이 약하여 난각의 두께가 엷어지기 쉽다. 그러므로 계사구조나 시설의 개선으로 활동하기에 적당한 온도를 만들어 줌이 필요하다.

③ 선천적인 원인

품종이나 계통에 따라 다르며 난육겸용종보다 다산계에 많고 햇닭보다 묵은 닭이 연란을 낳기 쉽다.

④ 질병으로 인한 원인

수란관염, 콕시듐증, 특히 과거에 호흡기병에 걸렸던 일이 있을시나 어떤 질병의 감염으로 설파제를 과량 또는 장기간 복용했을 때도 난각이 얇아지게 되기 쉽다.

⑤ 관리상 실수에서 오는 원인

놀램, 공포, 소음은 생리적으로 체내에 히스타민 물질을 많이 배출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궁부의 수축작용을 부조리하게 일으켜 난각이 엷은 알을 낳는다.

9. 각약증(脚弱症 Leg Weakness)

병신계가 갑자기 생기면 어떤 질병감염으로 단정하기 쉬우나 그 원인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치료함이 필요하다. 각약증이란 뼈나 근육의 기능에 이상이 오거나 신경이 침해를 받아 닭의 날개, 다리, 목등 어떤 부위에 장애를 받을시 나타나는 증상을 통털어 각약증이라 한다.

1) 영양장애로 인한 각약증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결핍에서 오는 영양장애는 대체적으로 어떤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식욕은 왕성하나 군전체의 발육이 나쁘다.

ⓑ동일사료를 먹는 전군에 나타나기 쉽다.

ⓒ이따금 발육이 좋은것에 나타난다.

ⓓ다산계나 부로일러에 많고 대개 그 원인을 제거하면 회복된다.

<표 4> Vitamine 결핍 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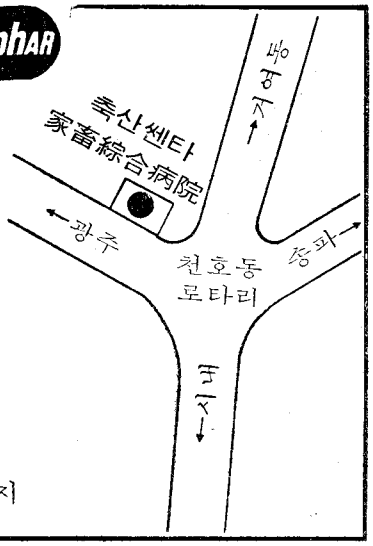
종 류	결 핍 증 상
Vitamine A	날개를 늘어뜨리고 비틀거리며 반원운동을 하여 뉴캣슬과 혼동하기 쉽다
〃 B_2	발가락을 안쪽으로 꼬부리는 곡지마비(曲趾痲痺)가 특징적이다.
〃 D	유추의 골추병(발육불량, 다리의 허약, 기립불능) 성계의 骨軟症(뼈가 힘없이 굽어있음)
〃 E	미친것처럼 머리와 다리를 흔들며 굽히고 비틀거린다. 목을 다리사이로 꼬부려 넣기도 하는 광추.

2) 질병에 의한 각약증

① 마렉병

6주령 이후의 닭에 나타나기 쉬우며 다리, 날개, 목의 신경이 침해를 받아 마비, 경련을 일으킨다. 해부소견으로는 좌골신경이나 의하신경이 종대되고 신경고유의 가로무늬(横紋)가 없어져 미끈하게 된다. 각약증을 일으키는 질병으로는 마렉병외에 콕시듐증이나 조뇌척수염등을 들수가 있겠다. 이러한 우리들 일상관리상 실수에서 일어나는 질병들을 무서운 전염병과 혼동하지 말고 올바른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될줄로 믿는다.

〈다음호에 계속〉 □□

해부검사 정확한 진단
각종 가축질병 및 축산에 관한 상담
각종 수의약품 취급

家畜쎈타
家畜綜合病院
獸医師 柳 起 馨
獸医師 安 勳
서울特別市성동구천호동403번지